東洋學 第85輯(2021年 10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院

모용선비(慕容鮮卑) 언어 연구* **

강 준 영***

국문초록

선비족의 일파인 모용선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 무대에서 활약하며 5호 16국(五胡十六國) 시기에 전연(前燕), 후연(後燕), 서연(西燕), 남연(南燕)을 비롯해 토욕혼(吐谷渾) 등의 정권을 세웠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학자의 주목을 받았고, 모용선비에 대해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언어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본 글에서는 모용선비가 역사 무대에서 활약했던 2~5세기까지의 언어에 대해 문헌 사료에 남아있는 관련 기록을 통해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 당시의 한자음을 재구해보고, 선행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이전에 분석되지 않았던 어휘 일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기존 연구에서 일부 잘못 해석된 것들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庫勾(kök, kökö), 阿六敦(=altan), 若洛/弈[奕]洛(nurən) 등과 같이 이들 어휘가 어떤 단어의 음역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qai/-gei', '-tu/-tü~-tan/-ten/-tun'와 같이 초기 선비부터 훗날의 유연(柔然), 중세 몽골어에서도 보이는 접사가 있었을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이들 접사는 모용선비의 언어가 몽골어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방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생각된다.

[주제어] 모용선비, 초기 선비, 모용선비어, 접사(接辭), 몽골어족

목 차

Ⅰ. 머리말
Ⅱ. 연구사와 연구방법
Ⅲ. 모용선비 어휘 고찰
Ⅳ. 모용선비 언어 분석
Ⅴ. 맺음말

* 본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慕容鮮卑歷史若干問題研究』제5장 제2절「慕容鮮卑的語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C2A01092498)

*** 단국대학교 부설 몽골연구소 전임연구원 / buyansabi@dankook.ac.kr

Ⅰ. 머리말

모용선비(慕容鮮卑)는 선비족(鮮卑族)의 일파로 『삼국지』에 주(註)를 단 배송지(裴松之)가 인용한 왕침(王沈)의 『위서(魏書)』에서 단석괴(檀石槐) 시기 중부(中部) 대인(大人) 중의 한 명으로 등장한다.[1] 그리고 모용외(慕容廆)의 증조부인 막호발(莫護跋)부터 사서(史書)에는 모용선비에 관해 비교적 명확한 기록이 남기 시작했다.[2] 오늘날 중국 내몽골자치구 동남부, 요녕성 서부, 하북성 북부 등 동북 지역을 주요 활동 지역으로 삼아 활동했다.

2세기 중・후기에 등장한 모용선비는 5호 16국(五胡十六國, 304~439) 시기에 전연(前燕), 후연(後燕), 서연(西燕), 남연(南燕)을 비롯해 토욕혼(吐谷渾) 등의 정권을 세웠다. 모용선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 무대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학자의 주목을 받았고, 이들의 기원, 정치,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비 관련 연구에 있어 탁발선비 관련 연구와 함께 모용선비와 관련된 연구가 다소 진행되긴 했지만, 문헌 사료와 고고학 자료 등의 부족이라는 문제에서 기인해 아직도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중 하나가 그들의 언어적 실체에 관한 연구이다.

돈황(燉煌) 막고굴(莫高窟)의 장경동(藏經洞)에서 발견된 티베트 고문서로 펠리오(P. Pelliot, 1878~1945)에 의해 프랑스로 옮겨진 일명 P.T.1283(Pelliot Tibétain 1283) 문서를 보면 “그 북방을 보면 거란(契丹, Ge-tań)이라 불리는 것이 있고……언어도 토욕혼(吐谷渾, ’A-zha)과 거의 일치한다.”[3]라는 내용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토욕혼은 모용외의 서형(庶兄)으로 그들 부락간에 발생한 “말(馬) 싸움”으로 갈라서며 서진(西進)을 했고, 그 손자인 엽연(葉延)이 자신의 조부인 토욕혼의 이름을 따서 정권의 이름으로 삼았다.[4] 즉,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토욕혼과 모용선비는 당연히 언어가 같았을 것이므로 모용선비의 언어도 마찬가지로 거란의 언어와 ‘거의 일치’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오늘날 학계는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거란어가 훗날의 몽골어와 친연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 역시 몽골어족에 속하는 언어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거란어와 ‘거의 일치’하는 언

---

1) 『三國志』 卷30, 魏書30, 鮮卑傳, 北京: 中華書局, 1959, 837쪽, “(檀石槐)乃分其地為中東西三部.……從右北平以西至上谷為中部, 十餘邑, 其大人曰柯最・闕居・慕容等.”

2) 중국의 설홍(薛虹)과 이주전(李澍田)이 편집을 주관한 『중국동북통사(中國東北通史)』에서는 단석괴 시기의 중부 대인 모용과 막호발을 동일 인물이라고 하였다(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1년, 172쪽). 단석괴가 선비를 3부로 나눈 것은 약 166~167년 사이의 일이고, 막호발이 공손연의 토벌에 참여해 조위의 명제(明帝)로부터 솔의왕으로 봉해진 것이 238년으로 둘 사이에는 7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만약 막호발이 대인으로 봉해진 것이 15세였다고 계산을 한다고 해도 솔의왕에 봉해졌을 때 86세 정도였다는 것인데 설혹 그가 생존해있었더라도 86세의 노구에 공손연 토벌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둘을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많은 학자의 지적과 같이 중부 대인인 모용의 아들이나 손자 등 그 후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에 관한 내용은 康准永, 『慕容鮮卑歷史若干問題研究』, 中國: 內蒙古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20년, 95~96쪽 참조).

3) P.T.1283 원문 공개 사이트 :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305761g/f2.item(검색일 : 2021.10.12.). 본 문장의 번역은 森安孝夫, 「チベット語史料中に現われる北方民族－DRU-GUとHOR－」,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14, 1977; 王堯・陳踐, 「敦煌古藏文本≪北方若干國君之王統敍記≫文書」, 『敦煌學輯刊』, 1981-2을 참조했다.

4)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369~2371쪽, “渾庶長, 廆正嫡. 父在時, 分七百戶與渾, 渾與廆二部俱牧馬, 馬鬥相傷, 廆怒……渾曰……於是擁馬西行……, 葉延亦不食. 頗視書傳, 自謂曾祖弈洛韓始封昌黎公, 曰: ‘吾為公孫之子. 案禮, 公孫之子, 得氏王父字.’ 命姓為吐谷渾氏.”

어인 토욕혼과 그 뿌리가 같은 모용선비의 언어도 역시 몽골어족의 언어와 유사하며, 몽골어와 친연성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가능성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거란과 토욕혼 언어의 유사성에 대해 기록한 P.T.1283 문서의 작성 시기가 토번(吐蕃)이 돈황을 지배했던 787~848년 사이로 고증되고 있다는 것이다.[5] 즉, P.T.1283 문서가 작성된 8~9세기는 모용선비가 등장해서 활약하던 4~5세기와 수백 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언어는 유기체처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한다. 따라서 수백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했을 것이므로 P.T.1283 문서가 작성된 8~9세기의 토욕혼이나 거란이 사용한 언어는 모용선비가 등장해서부터 역사 무대에서 많은 활약을 했던 2~5세기에 사용했던 언어와는 다를 것이다. 그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용선비의 언어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모용선비가 등장해 역사무대에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했던 2~5세기까지의 언어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오늘날 남아있는 언어 자료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모용선비의 언어적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문헌 사료에 남아있는 어휘들을 정리해 분석함으로써 그 단면이나마 확인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사와 연구방법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고대 북방유목민족의 언어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일본의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이하 시라토리]로부터 시작되었다. 시라토리는 1910년대 일본의 『사학잡지(史學雜誌)』에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호민족고(東胡民族考)」란 주제로 북방유목민족, 특히 동호(東胡) 계통으로 추측되는 민족들의 언어에 관해 연구한 글을 발표했다. 그리고 여기에 “모용(慕容)”, “약락외(若洛廆)”, “토욕혼(吐谷渾)”, “가한(可汗)”, “아간(阿干)”, “처(處)” 등 모용선비의 어휘를 분석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6] 이것이 모용선비의 언어에 관한 연구의 시초이다.

이후 시라토리로부터 사사한 중국의 방장유(方壯猷)가 1934년에 이 글들을 한데 모아 같은 제목의 중국어 번역서로 출간하였다.[7] 이 시기를 전후해서 풍가승(馮家昇)이 『지학잡지(地學雜志)』에 역시 「동호민족고」의 내용 일부를 번역해 소개한 바가 있다.[8]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학계는 북방유목민족의 언어를 연구하는 데 시라토리의 원저작이나 풍가승의 번역본보다 대개 방장유의 번역서만을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방장유의 번역서가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 즉, 오늘날 모용선비의 언어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많은 중국에서는

5) 박원길, 「Sine-usu碑文과 P.1283文書에서 본 바이칼 주변 및 동몽골의 민족분포－Čik과 鞠部, Mug-lig(貊族)와 白霫을 중심으로－」, 『몽골학』 54, 한국몽골학회, 2018, 4쪽.
6) 본 글은 白鳥庫吉, 『白鳥庫吉全集, 第四卷, 塞外民族史研究 上』, 東京: 岩波書店, 1970에 재수록 되었다.
7) 白鳥庫吉著, 方壯猷譯, 『東胡民族考』, 上海: 商務印書館, 1934.
8) 馮家昇, 「東胡民族考」, 『地學雜志』, 1934-2; 馮家昇, 「東胡民族考(一續)」, 『地學雜志』, 1935-1; 馮家昇, 「東胡民族考(二續)」, 『地學雜志』, 1935-2.

방장유의 번역서가 그 연구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모용선비의 언어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대체로 시라토리가 분석했던 위 어휘들의 재해석이나 수정하고 있는 정도이며 이 어휘의 범주를 벗어난 연구는 극히 드문 편이다. 따라서, 기존에 분석된 어휘가 아닌 여타 모용선비의 일부 어휘에 관해 분석한 요종이(饒宗頤),[9] 프리차크(Omeljan Pritsak),[10] 주학연(朱學淵),[11] 라신(羅新)[12] 등의 학자나 "-괴(瑰)", "-괴(魁)", "-괴(槐)", "-외(隗)", "-외(廆)"와 같이 선비 인명의 접미사를 해석한 애음범(艾蔭範)[13]의 연구는 비록 그 해석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존 연구와 달리 여타 어휘나 접미사 등 모용선비 언어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에서는 모용선비의 언어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가운데 대체로 국외의 상황와 마찬가지로 시라토리가 분석한 어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성규가 「선비어 관직명 연구(鮮卑語 官職名 硏究)」에서 "-외(廆)"와 "-귀(歸)"의 접미사를 분석하고, 신라 왕명에 보이는 "해(解)"와 연결을 시도한 것은 의의가 있다.[14]

기존 연구 성과들이 시라토리가 분석했던 어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대체로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정소용(鄭小容)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용선비는 성씨나 이름을 통해 그들의 언어를 보존하고 있었고,[15] 그들의 언어로 보이는 어휘도 상당수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용선비의 언어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이들의 언어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분석한 어휘에다 문헌 사료에 남아있는 모용선비의 어휘 중 해석이 가능한 일부 어휘를 해석해보고, 모용선비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당시 한자음을 재구하는데 있어 고대 한자음 연구자인 이진화(李珍華)・주장읍(周長揖)[16]과 곽석량(郭錫良)[17]의 저작을 활용한다. 이어 기존 연구 성과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기존에 연구된 적 없던 어휘 일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모용선비의 언어는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확인해 당시 모용선비의 언어적 실체에 대해 한 발짝 다가가 본다.[18]

---

9) 饒宗頤, 「穆護歌考--兼論火祆教入華之早期史料及其對文學、音樂、繪畫之影響」, 『饒宗頤東方學論集』, 汕頭: 汕頭大學出版社, 1999.

10) Pritsak, O., "From the Säbirs to the Hungarians". In Edited by Gyula Káldy-Nagy. *Hungaro-Turcica: Studies in Honour of Julius Németh.* Budapest: Loránd Eötvös University, 1976.

11) 朱學淵, 「鮮卑民族及其語言(上)」, 『滿語硏究』, 2000-1.

12) 羅新, 「論拓跋鮮卑之得名」, 『歷史硏究』, 2006-6.

13) 艾蔭範, 「尾音節爲"隗"的古鮮卑人名音讀和意涵初判」, 『北方文物』, 2013-4.

14) 이성규, 「선비어 관직명 연구(鮮卑語 官職名 硏究)」, 『몽골학회』 53, 한국몽골학회, 2018.

15) 鄭小容, 「慕容鮮卑漢化過程中所保留的本族文化」,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5-2.

16) 李珍華・周長揖,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17) 郭錫良, 『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18) 토욕혼의 언어도 모용선비의 언어 범주에 넣어야 하지만 토욕혼 정권의 성립 이후로 이들의 어휘에는 강족(羌族), 서역(西域)과 토번(吐蕃)을 비롯해 다양한 어휘가 차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글에서는 토욕혼의 언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Ⅲ. 모용선비 어휘 고찰

1. 가족혼(可足渾)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khai tsǐwɔk ɣuɑn
	中古音 : khɑ tsǐwok ɣuən
郭錫良	上古音 : k'a tsǐwŏk ɣuən
	中古音 : k'ɑ tsǐwok ɣuən

가족혼은 전연(前燕) 시기 경소제(景昭帝) 모용준(慕容儁)의 황후의 성씨이다.[19] 그 아들인 유제(幽帝) 모용위(慕容暐)도 그녀의 당질녀(堂姪女)인 가족혼씨를 황후로 삼았는데 『십육국춘추』에서는 "가주혼(可朱渾)"이라고 쓰여있다.[20] 북위(北魏) 시기의 성씨로 "갈촉혼(渴燭渾)"이 있는데 역시 가족혼과 가주혼의 동음이역(同音異譯)일 수도 있다.[21]

『위서 · 관씨지』에 보면 "갈촉혼씨는 훗날 미(味)씨로 고쳤다."[22]고 하였는데, 시라토리는 이를 근거로 "갈촉혼"은 "미(味)"란 뜻이며 이는 몽골어족에서 '맛, 맛있는, 감미로운'의 뜻을 지닌 'amtêkhang'에서 'm'이 생략된 음역으로 당시 소릿값은 'hamtêkhang, khamtêkhang'이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한편 퉁구스어족의 'amta, amtan, amtambi, amtakal, amtaren', 튀르크어족의 'amtan'. 한국어의 mas(mat)' 일본어의 'ama' 등도 역시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23] 프랑스의 학자 바쟁(Louis Bazin)은 '가주혼(可朱渾)', '갈촉혼(渴燭渾)', '가족혼(可足渾)'을 같은 성씨로 보고, 이는 맛[味]을 보는 도구인 '국자, 숟가락'을 뜻하는 고대 돌궐어의 'qašuq'에 접미사 '-ɣun'이 더해진 'qašuqɣun'의 음역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24]

가족혼, 가주혼(可朱渾; *khɑ-tɕǐu-ɣuən), 갈촉혼(*khɑt-tɕǐwok-ɣuən)의 소릿값과 시라토리가 주장한 'amtêkhang', 'hamtêkhang', 'khamtêkhang'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m'이 생략된 형태였다고 하더라도 동음이역(同音異譯)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릿값의 형태가 다르다. 바쟁의 주장 같은 경우 소릿값에서 비교적 일치성이 있긴 하지만 '국자, 숟가락'과 '맛'이라는 뜻을 연결하는 것은 비약이라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주혼, 갈촉혼 등이 훗날 바뀐 성씨는 '미(味)'가 아니라 '주(朱)'이며 '미(味)'는 '주(朱)'의 오기였을 가능성이 있다.[25] 따라서 가족혼, 가주혼, 갈촉혼의 성씨를 '맛[味]'이라는 뜻과 연결해 본 시라토리와 바쟁의 주장은 애당초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

19) 『晉書』 卷110, 載記10, 慕容儁載記, 北京: 中華書局, 1974, 2834~2835쪽, "立其妻**可足渾**氏為皇后."
20) 『太平御覽』 卷121, 偏覇部5, 前燕慕容暐條, 北京: 中華書局, 1960, 585쪽, "十年四月立貴妃**可朱渾**氏爲皇后."
21) 『通志』 卷29, 氏族略5, 代北三字姓, 渴燭渾氏條, 北京: 中華書局, 1987, 476쪽, "渴燭渾氏: 改為朱氏. 渴燭渾 · 可足渾, 疑與可朱渾同而音轉矣."
22) 『魏書』 卷113, 官氏志, 北京: 中華書局, 1974년, 3014쪽, "渴燭渾氏, 後改為味氏."
23)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163~164쪽.
24) Bazin, L., "Recherches sur les Parlers T'o-pa", *T'oung Pao* 39: 4/5, 1950, P.292.
25) 章紅梅, 「"可足渾氏"考辨」, 『北方文物』, 2018-1.

2. 가한(可寒)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khai ɣan
	中古音 : khɑ ɣɑn
郭錫良	上古音 : k'a ɣan
	中古音 : k'ɑ ɣɑn

가한은 "관가(官家)"라는 뜻이다.[26] 기존의 많은 연구 성과를 통해 명확하게 해석된 바와 같이 이는 '황제(皇帝)'를 뜻하는 '카한(khahan=khakhan)"의 한자 음역 형태의 하나이다. '가한(可寒)'은 현존하는 문헌 사료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카한'의 음역으로 북방의 군장 칭호인 '카(kha)'+'칸(khan)'의 중첩 표현으로 여겨진다.

부여와 고구려의 '-가(加)', 백제에서 왕을 이르는 어라하(於羅瑕)에서의 '-하(瑕)'가 '카(kha)'의 음역으로 생각된다. 신라의 '간(干)', 초기 선비의 '한(韓)', '건(騫)', '한(汗)' 등이 칸(khan)'의 음역으로 여겨진다. 사료에 각기의 표현들이 사용된 시점으로 볼 때 본래는 '카(kha)'가 사용되었다가 '-n' 접사가 붙은 '칸(khan)'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들을 중첩해 '카한'이란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 단석괴의 손자 이름인 '건만(騫曼)'이 역시 북방 군장 칭호인 '칸(khan)'과 '文, 曼, 滿'이 중첩된 표현으로 생각된다.[27] 선비족이 군장 칭호를 중첩해서 사용한 것은 중원에서 '왕(王)'을 뜻하던 '황(皇)'과 '제(帝)'를 합쳐 '황제(皇帝)'로 했던 전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단석괴는 동부와 서부 및 중부로 나누어져 있던 선비 세력을 통합했던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45세의 나이로 죽자 아들인 화련이 전쟁에서 죽자 그 아들인 건만 대신에 형의 아들인 괴두가 대인이 되었다. 건만이 자라 어른이 되어 괴두와 나라를 다투게 되었고 무리들이 떨어져 나가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28]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건만은 단석괴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한편 여타 선비 군장들보다 자신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진시황이 '왕'이란 칭호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천하의 지배자로서 차별을 두기 위해 '황'과 '제'를 합쳐 '황제'라는 합성어를 만들었듯이 건만도 역시 '칸(khan)'과 '文, 曼, 滿'을 합친 합성어를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카한도 역시 이러한 정황 속에서 여타 선비의 군장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 '카'와 '칸'을 합쳐 만든 합성어일 수도 있다.

별도로 '가한(可寒)'이란 한역(漢譯)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1980년 7월 내몽골자치구 오로천자치기(鄂伦春自治旗, Oroqen)의 갈선동(嘎仙洞)에서 발견된 북위 태무제(太武帝) 태평진군(太平眞君) 4년(433)의 석각 축문(祝文)에도 역시 '황제'를 지칭하는 어휘로 '가한(可寒)'이라고 쓰여 있다는 점이다.[29] 즉, 5세기 중엽까지는 '카한(khahan)'이란 어휘를 한역할 때 '가한(可寒)'이란 한자로도 다소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

26)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369쪽, "虜言'處**可寒**', 宋言爾'**官家**'也."
27) 강준영, 앞의 논문, 2021.
28) 『三國志』 卷30, 魏書30, 鮮卑傳, 北京: 中華書局, 1959, 837~838쪽 참고.
29) 米文平, 『鮮卑史研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4, 30쪽.

3. 고구(庫勾)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kha kɔ
	中古音 : khu kau
郭錫良	上古音 : k'a ko
	中古音 : k'u kəu

고구는 후연 혜민제(惠愍帝) 모용보(慕容寶)의 소자(小字)이다.[30] 그 소릿값을 보면 퀼 티긴 비문이나 빌게 카간 비문과 같은 돌궐비문에서 '푸른'을 뜻하는 'kök',[31] 『몽골비사』에서 '푸른, 푸른색'을 뜻하는 'kökö'[32]의 소릿값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몽골어족과 튀르크어족에서 이 어휘들이 일반적인 '푸른색, 푸르다'를 지칭하기는 하지만 하늘이나 민족 등의 앞에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신성(神聖)하다'라는 뜻이 내포된다. 따라서 '보배, 보물, 신'의 뜻이 있는 '보(寶)'와도 그 뜻이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용보의 소자 '고구(庫勾)'를 몽골어족이나 튀크트어족에서 '[신성한]푸른, 푸른색' 등을 뜻하는 'kök, kökö'와 연결해도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구가 '소자(小字)'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자'라는 표현은 모용선비의 선비어 이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4. 막호발(莫護跋)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muak ɣu buat[beat]
	中古音 : mɑk ɣa buɑt[bæt]
郭錫良	上古音 : măk ɣuāk buăt[beăt]
	中古音 : mak ɣu buat[bæt]

막호발은 모용외(慕容廆)의 증조부이다. 홍콩의 학자인 요종이는 이를 페르시아어에서 '조로아스터교 사제'라는 뜻을 지닌 'mogu(莫護)'와 '추종자, 소유자'란 뜻을 지닌 'van(跋)'이 합쳐진 'mogu-van'의 음역으로 봤다.[33] 중국의 라신은 이를 막호(莫護)라는 관호(官號)에다 beg(跋)이라는 관칭(官稱)이 합쳐진 형태의 명호(名號)라고 보았다.[34]

우선, 막호발을 페르시아어의 '조로아스터교 사제의 추종자'인 'mogu-van'의 음역으로 본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모용선비의 선조인 선비인들의 종교를 보면 조상 숭배나 자연 숭배와 같이 샤머니즘이 우

30) 『魏書』 卷95, 列傳83, 徒何慕容廆傳附慕容寶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068쪽, "寶, 字道祐, 小字庫勾."
31) Talat Tekin(저), 이용성(역), 『돌궐비문연구: 퀼 티긴 비문, 빌게 카간 비문, 투뉴쿠크 비문』, 서울: 제이앤씨, 2008, 88; 89; 133; 134쪽.
32)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파주: 사계절, 405; 433쪽.
33) 饒宗頤, 앞의 책, 1999, 86~91쪽.
34) 羅新, 앞의 논문, 2006-6.

세했으며 모용-전연 시기에는 불교가 유입되어 불교를 신봉했던 흔적만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이들이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다는 역사적 정황이 없기 때문이다.[35] 즉, 요종이의 견해는 소릿값의 유사성에만 근거한 것으로 모용선비가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다는 근거 자료가 없으므로 성립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라신이 'beg'이라는 관칭이라고 본 발(跋)의 당시 소릿값을 재구해보면 위 표와 같이 *buat[beat], *buɑt[bæt], *buăt[beăt], *buat[bæt]이다. 음운학적으로 볼 때, 중고시기 한어(漢語)에서는 '-t'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를 사용해서 북방민족 언어의 '-r' 받침을 번역할 때 사용했다. 하지만 '-t' 받침을 사용해서 중국어가 아닌 여타 언어의 '-g(-k)'을 음역하는데 사용했던 흔적은 없다. 따라서 라신의 견해도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

5. 모여근(慕輿根)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mua ʎĭa kən
	中古音 : mu jĭo kən
郭錫良	上古音 : māk ʎĭɑ kən
	中古音 : mu jĭo kən

모여근은 절충장군(折衝將軍), 광위장군(廣威將軍), 영군장군(領軍將軍), 태사(太師) 등의 직책을 맡았던 모용-전연 정권 시기의 중신이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학자인 프리차크는 모여근의 소릿값이 *mâk-ʐio-kαn〉*mâgč-ger〉*Majġar와 같이 변해서 모여근이 곧 마자르(Magyar)의 음역이라고 보았고, 모용선비나 모여근 집안의 일부 사람들이 서부 시베리아로 와서 헝가리인의 형성을 촉성했다고 보았다.[36]

모여근은 모용황(慕容皝) 때부터 많은 전공을 세워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모용위(慕容暐)가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용각(慕容恪)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역심을 품었다가 그의 처자식과 무리 모두 주살 당했다.[37] 모여근과 처자식을 비롯해 무리가 주살 당했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여근이나 그 집안이 서부 시베리아로 갔다고 보기 어렵거니와 설령 갔다고 하더라도 반역을 꾀하다 죽은 모여근의 이름을 사용했을 확률은 없다고 보인다. 모용선비도 마찬가지로 반역자로 죽임을 당한 모여근의 이름으로 부족명을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도 마자르인이 모용선비나 모여근과 관계가 있다고 하기에는 문헌 자료 등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모여근의 소릿값이 프리차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화했다고 보기에도 실상 어렵다. 즉, 기록이나 음운학적으로 볼 때 프리차크의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모여(慕輿)'는 '모용(慕容)'의 이역(異譯)인데, '모용'이 '선, 덕행, 복' 등의 뜻이 있는 몽골어와 고대 돌궐어 중의 'buyan'의 음역으로 생각되므로 모여도 역시 'buyan'의 음역으로 볼 수 있다.[38] '근(根)'은 보도근(步度根)의 '근(根)'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의 '크다(구결에서의 斤[큰])'와 연결되지 않나 싶다.[39]

35) 모용선비의 종교에 대해서는 金成淑, 『慕容鮮卑文化硏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1999, 80~100쪽 참고.
36) Pritsak, O., *op. cit.*, 1976, pp. 28~30.
37) 『資治通鑑』 卷101, 晉紀23, 昇平四年二月條, 北京: 中華書局, 1976, 3180~3181쪽.
38) 강준영, 앞의 논문, 2020, 75~86쪽.

6. 섭귀(涉歸)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zĭap kĭwəi
	中古音 : ziɛp kĭwəi
郭錫良	上古音 : zĭăp kĭwəi
	中古音 : zĭɛp kĭwəi

섭귀는 모용외와 토욕혼의 부친 이름이다. 주학연은 섭귀를 삼국 시기 서부(西部) 선비의 수령인 설귀니(泄歸泥)의 줄임말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금나라 시기 여진어에서의 '십고내(什古乃)', 헝가리어의 'szeguny', 회흘어의 'chighan', 'chighay', 'chighany', 카자흐어의 'shighay' 등이 설귀니에서 유래한 어휘들이라고 주장하였다.[40]

이진화와 주장읍의 저작에 근거하면 설귀니의 당시 소릿값은 *sĭatkĭwəiniei(상고음)나 *sĭɛtkĭwəiniei(중고음)로 재구된다. 설귀니와 섭귀의 소릿값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섭귀를 설귀니의 줄임말로 볼 수도 없거니와 주학연의 주장과 달리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어휘들의 소릿값과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41]

7. 아간(阿干)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ai kan
	中古音 : ɑ kɑn
郭錫良	上古音 : a kan
	中古音 : ɑ kɑn

문헌 사료에 따르면 아간은 '형(兄)'이란 뜻이 있고,[42] 북위 문성제(文成帝, 재위 452~465)의 『남순비(南巡碑)』와 사료를 통해 또한 '장자(長者)'라는 뜻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3] 시라토리와 방장유는 몽골어족, 퉁구스어족, 튀르크어족에서 '형'이라는 뜻이 있는 'agá', 'aka', 'aki', 'akin', 'axa', 'akaī', 'aga', 'aǵa', 'aǵača' 등의 어휘가 모두 '아간'과 같은 어원을 지닌 단어라고 보았다.[44] 바쟁은 이 단어가 고대 몽골어와

39) 강준영, 앞의 논문, 2021.
40) 朱學淵, 앞의 논문, 2000-1.
41) 이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서는 이미 강준영, 「초기 선비(鮮卑) 어휘 연구」, 『몽골학』 65, 한국몽골학회, 2021에서 서술한 바가 있다.
42) 『晉書』 卷97, 列傳67, 西戎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537쪽, "鮮卑謂兄為阿干.";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370쪽, "鮮卑呼兄為'阿干'". 『魏書 · 吐谷渾傳』에서는 '아간(阿干)'을 '아우(阿于)'로 썼지만 '간(干)'의 오기이다((點校本 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7, 2420; 2440쪽).
43) 張文杰, 「北魏文成帝「南巡碑」中的鮮卑職官」, 『止善』 17, 2014.

고대 돌궐어의 'aqan(돌궐어 aɣa, 몽골어 aqa)'이라고 보았고,[45] 펠리오(Paul Pelliot), 부드버그(Peter A. Boodberg), 수흐바타르(G. Sukhbaatar), 이린친(Irinchin) 등의 학자들은 이 단어가 몽골어 'aqa(n)'의 음역이라고 보았다.[46]

목월(繆鉞)은 '아간'이란 단어가 형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나 귀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간'은 음역이며 '장자'와 '연장자, 손위[長]'는 의역(意譯)이라고 하였다.[47] 부드버그는 '아간'이란 단어가 『위서 · 가실릉전』과 『신당서 · 재상세계표』 중에서 보이는 북위의 관명인 '아간(阿干)'[48]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송기중은 신라의 제18대 실성이사금(實聖尼師今)의 장인인 '석등보아간(昔登保阿干)'에서 아간을 관직명으로 보고 고구려 관직명에 '대형(大兄)'이 존재하고, 탁발선비의 관직명으로 '(內)아간'이 쓰인 사실로 미루어 '형(兄)'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관직명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49] 이성규는 이를 근거로 한 발짝 더 나아가 고구려 관직명에 나타나는 형(兄)은 한문 표기로 당시에는 아마 '아간'으로 호칭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며 '아간'은 현대 몽골어의 'aq-a'와 일치하는 형태로 당시 고구려, 신라 선비에서 'aq-a'라는 관직명이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보았다.[50]

라신은 고구려와 부여 관직명 중의 '가(加)'와 신라 관직명 중의 '-찬(飡)', '-간(干)' 등도 역시 '아간(阿干; 兄)'의 다른 음역 형태로, 한자로 전사할 때 간결하게 하려고 단어의 초성인 'a-'를 생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51] 그러나 몽골어의 초성은 명음에 속하며 어휘의 강세가 대개 어두에 있어 이를 한자로 번역할 때 생략하거나 탈락했던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52] 따라서 '아간'이 신라 관직명 중의 '-찬', '-간'으로 바뀐다고 하는 라신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불어 부여나 고구려 관직명 중의 '가(加)'는 '가한(可汗)'의 옛 형태일 가능성이 있고,[53] '-찬'의 소릿값은 *tshan(상고음), *tshɑn(중고음)으로 재구되기 때문에 '(a)qan'과 같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尺(자; 자히〉쟁이)'과 '干(han)'의 합음으로 봐야 할 것이다.[54]

아간(阿干)은 '형(兄)', '장자(長者)'라는 뜻을 지녔으며 몽골어족, 퉁구스어족, 튀르크어족을 비롯해 고대 한국어에서도 그 형태가 보인다. 또한, 이 어휘는 고구려, 신라, 탁발선비에서 관직명으로도 사용했다.

---

44)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126~127쪽; 方壯猷, 「鮮卑語言考」, 『燕京學報』, 1930-8.
45) Bazin, L., *op. cit.*, 1950, p. 311.
46) Pelliot, P., "Note sur les T'ou-yu-houen et les Sou-p'i", *T'oung pao* 20: 5, 1921, p. 329; Boodberg, P. A., "The Language of the T'o-Pa Wei",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 2, 1936, p. 171; Sukhbaatar, G., *Syanbi Narin Ugsaa Garal, Soyol, Aj Akhui, Niigmiin Baiguulal(Nen ertnees m.e.Ⅳ zuun)*, Ulaanbaatar: Shinjlekh Ukhaani Akademiin khevlel, 1971, p. 1; 亦鄰眞, 「中國北方民族與蒙古族族源」, 『內蒙古大學學報』, 1979-3~4.
47) 繆鉞, 「北朝之鮮卑語」, 『讀史存稿』, 北京: 三聯書店, 1963, 69~70쪽.
48) 『魏書』 卷15, 列傳3, 常山王遵傳附子素長子可悉陵傳, 北京: 中華書局, 2017, 436쪽, "即拜內行阿干."; 『新唐書』卷71下, 表11, 宰相世系一, 北京: 中華書局, 1975, 2404쪽, "位至內阿干".
49) 송기중, 「新羅 前半期의 官職名 · 人名과 北方民族語」, 『진단학보』 61, 진단학회, 1986.
50) 이성규, 앞의 논문, 2018.
51) 羅新, 「高句麗兄系官職的內亞淵源」, 『中古北族名號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175~193쪽.
52) 張久和, 「關于室韋語言的幾個問題--室韋史研究之二」, 『內蒙古社會科學』(文史哲版), 1992-2 참조.
53)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120~126쪽.
54) 김상윤, 「三國의 固有語 官職名語彙 小考」, 『어문연구』 72, 어문연구학회, 2012.

8. 아육돈(阿六敦)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ai lǐuk tuən[duən]
	中古音 : ɑ kɑn
郭錫良	上古音 : a lǐəuk tuən[tuəi]
	中古音 : ɑ lǐuk tuən[tuɒi]

아육돈은 모용황(慕容皝)의 아들이자 후연(後燕)을 세운 모용수(慕容垂)의 소자(小字)이다.[55] 동위(東魏)와 북제(北齊) 시기의 명장이었던 곡률금(斛律金, 488~567)의 자(字)도 역시 모용수의 소자와 같게 '아육돈(阿六敦)'이다.[56] 섭홍음은 곡률금의 자인 '아육돈'에 대해 튀르크어족과 몽골어족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금(金)'을 지칭하는 어휘로, 오늘날의 위구르어와 살라르(Salar)어의 'ɑltun'; 카자크어, 키르기스어와 타타르어의 'ɑltən'; 우즈베크어의 'ɑltin'; 토와어의 'ɑldɣn'; 서부 유고(裕固)어의 'ɑhldən' 등 '금(金)'이란 뜻을 지닌 어휘들과 관련 있다고 보았다.[57]

『북사』의 기록에 보면 곡률금에 대해 "금의 성격은 소박하고 정직했지만, 문자는 몰랐다. 본명은 돈(敦)인데 그 서명의 어려움이 고되어 이름을 금(金)으로 바꾸었으니 그 편의를 쫓기 위함이었으나 여전히 어렵게 여겼다."라고 하였다.[58] 『북제서』와 『북사』에서 모두 곡률금의 자를 '아육돈'이라 썼으므로 '돈'은 '아육돈'의 오기나 줄임말로 생각된다. 그리고 '아육돈'이란 이름을 '금(金)'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아육돈'이 '금'이란 뜻을 가진 어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재구된 소릿값을 보면 섭홍음의 주장처럼 튀르크어족과 몽골어족에서 '금(金)'을 지칭하는 어휘들인 'altan' 등과 부합한다. 따라서, '아육돈'은 몽골어족과 튀르크어족에서 '금'을 뜻하는 어휘인 'altan' 등의 음역으로 봐도 무방하다.

모용수의 소자인 '아육돈' 역시 곡률금의 자인 '아육돈'과 한자가 같으므로 몽골어족과 튀르크어족에서 '금(金)'을 지칭하는 어휘의 음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9. 약락외(若洛廆) / 혁락괴(弈洛瓌)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ȵia(ȵǐak) lak kuəi / ʎiăk lak kuəi
	中古音 : ɣɣa(ɣǐak) lɑk kuɒi / jǐɛk lɑk kuɒi
郭錫良	上古音 : ȵǐăk lăk kuəi / ʎiăk lăk kuəi
	中古音 : nzǐak lak kuɒi / jǐɛk lak kuɒi

55) 『太平御覽』 卷125, 偏覇部9, 後燕慕容垂條, 北京: 中華書局, 1960, 605쪽, "崔鴻『十六國春秋 · 後燕錄』曰: 慕容垂, 字道明, 皝第五子, 小字阿六敦."

56) 『北齊書』 卷17, 列傳9, 斛律金傳, 北京: 中華書局, 1972, 219쪽, "斛律金, 字阿六敦".

57) 聶鴻音, 「鮮卑語言解讀述論」, 『民族研究』, 2001-1.

58) 『北史』 卷54, 列傳42, 斛律金傳, 北京: 中華書局, 1974, 1966쪽, "金性質直質直, 不識文字. 本名敦, 苦其難署, 改名為金, 從其便易, 猶以為難."

약락외 또는 혁락괴는 모용외(慕容廆)의 자(字)이다.[59] 시라토리는 '여락괴(如洛瓌)', '뇨라개(裊羅個)'의 소릿값과 '약락외'의 소릿값이 유사함을 근거로 해서 '약락외'도 혹시 '연한 노랑'의 뜻을 지닌 몽골어 'šara-kha'의 음역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60] 소르바드라흐(Surbadrakh)도 역시 '약락외'를 '여락괴'와 '뇨라개'의 같은 소리라고 보았다.[61] 즉실(即實)도 또한 '약락외'는 '비교적 노란'이란 뜻이며 황하(潢河)의 선비 이름이라고 보았다.[62] 이와 달리 주학연은 이를 현대 몽골어에서 '건장(健壯)'이라는 뜻을 지닌 'cheregh'의 음역으로 동호(東胡)－선비어 중에서 '용사, 영웅'이란 뜻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63]

'뇨라개'의 당시 소릿값은 *niauluɔkɔ이고, '여락괴'의 소릿값은 *nzǐolɑkkuɒi로 재구된다. 즉, '약락외', '혁락괴', '뇨라개', '여락괴'의 소릿값을 보면 시라토리가 주장한 'šara-kha'의 음역이나 주학연이 주장한 'cheregh'의 음역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용외의 자인 '약락외', '혁락괴'는 요락수(饒樂水)의 다른 명칭인 '뇨라개', '여락괴'의 소릿값과 대동소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어휘들이 모두 동일한 어휘의 다른 한자 음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뇨라개', '여락괴' 등은 졸고인 「초기 선비(鮮卑) 어휘 연구」에서 밝혔듯이 거란어에서의 여고(女古, nürgü/nürga), 고려에서 금(金)을 가리키던 '누른 쇠(那論歲; nurənsoi)'에서의 '누른(nurən)'과 연결된다. 또한, 이는 오늘날 한국어에서 노란색을 표현하는 어휘들 '누르고', '누렇다', '노랗다', '노란' 등과 이어진다. 따라서 거의 비슷한 소릿값을 가진 '약락'과 '혁락'도 '누른'의 음역이라 생각되며, '-외(廆)', '-괴(瓌)'의 경우 존경이나 금지의 뜻을 가진 몽골어 접사 '-qai/-gei'로 보는 게 무방할 것이다.[64]

10. 을나루(乙那樓)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ǐet na lɔ
	中古音 : ǐět nɑ ləu
郭錫良	上古音 : ǐět na lo
	中古音 : ǐět nɑ ləu

을나루는 모용외 때의 장사(長史) 이름으로 '칠나루(七那樓)'와 '사나루풍(史那樓馮)'으로도 쓰여있다.[65] 모

59)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369쪽, "父弈洛韓, 有二子, 長曰吐谷渾, 少曰若洛廆. 若洛廆別為慕容氏."; 『晉書』 卷108, 載記8, 慕容廆載記, 北京: 中華書局, 1974, 2803쪽, "慕容廆字弈洛瓌".

60)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88~97, 103~104쪽.

61) 蘇日巴達拉哈, 「蒙古族源之新探(續)」, 『內蒙古社會科學』, 1982-1.

62) 即實, 「契丹國號解」, 『社會科學輯刊』, 1983-1.

63) 朱學淵, 앞의 논문, 2000-1.

64) 강준영, 앞의 논문, 2021. 이 논문에서 '여락괴(如洛瓌)'를 '여락환(如洛環)'으로 잘못 기술해서 분석한 바가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락괴'도 역시 누런+-qai/-gei의 형태로 봐야 할 것이다.

65)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369쪽, "舊父老及長史乙那樓追渾令還"; 『魏書 · 吐谷渾傳』((點校本 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7, 2419쪽)과 『北史 · 吐谷渾傳』((點校本 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1974, 3178쪽)에서는 '칠나루(七那樓)'; 『晉書 · 吐谷渾傳』(北京: 中華書局, 1974, 2537쪽)에서는 '사나루풍(史那樓馮)'으로 쓰여있다.

용황(慕容皝) 시기 호군(護軍)으로 을일(乙逸)이란 인물이 보이고,[66] 후연의 3대왕 모용성(慕容盛) 시기에 단부(段部) 선비 수령 난한(蘭汗)의 처가 을(乙)씨였다.[67] 이를 보면 나루의 성도 '을(乙)'씨였을 가능성이 때문에 '을(乙)' + '나루(那樓)'로 분석해야 한다.

나루의 경우 몽골어에서 '태양, 날' 등을 뜻하는 'nara', 한국어에서 '날[日], 하늘'을 뜻하는 '날(nal)' 혹은 '간수, 보호, 경비' 등을 뜻하는 몽골어 어간 'mana-'에 접미사 '-l'이 붙어 순음화한 형태인 'monal'의 음역일 가능성도 있다.[68]

11. 처(處)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ʈʰĭa
	中古音 : tɕhĭo
郭錫良	上古音 : ʈʰĭa
	中古音 : tɕʰĭo

처는 '이(爾)'라는 뜻이다.[69] 시라토리는 이(爾)를 '응낙, 공손하게 대답하는 말[唯]' 등을 뜻하는 어휘로 보고, '처'를 몽골어와 만주어의 'dje', 부리야트어 'zöb'의 음역으로 보고, 유연(柔然) 토하진(吐賀眞)의 카한 칭호인 '처(處)'도 역시 같은 뜻이라고 보았다.[70] 방장유를 비롯한 후지타 토요하치[藤田豊八], 목월, 수흐바타르, 용화(龍華), 주위주(周偉洲), 저태송(儲泰松)과 장애운(張愛雲) 등 많은 학자도 역시 시라토리의 견해에 동조했다.[71] '이(爾)'를 2인칭 대명사의 뜻으로 보고, 몽골어의 'či'나 만주어의 'si'의 음역으로 보았던 펠리오도 후에는 시라토리의 논증과 『위서 · 유유전』의 "'처(處)' 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유(唯)'라는 뜻이다"[72]라는 기록에 근거해서 '처'를 '네, 그렇습니다'라는 뜻을 지닌 몽골어 'ǰöb(ǰüb)' 또는 'ǰä'의 음역이라고 하였다.[73]

이 견해에 대해 이린친은 선비어와 훗날의 몽골어가 비슷하더라도 감탄사까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며 이를 견강부회라고 여겼다.[74] 선행 연구를 통해 밝힌 듯이 『위서 · 유유전』의 '처(處)'는 '처라(處羅)'의 오

66) 『晉書』 卷109, 載記9, 慕容皝載記, 北京: 中華書局, 1974, 2816쪽, "將軍孫機以遼東叛于皝, 東夷校尉封抽、護軍乙逸".
67) 『晉書』 卷124, 載記24, 慕容盛載記, 北京: 中華書局, 1974, 3099쪽, "汗妻乙氏泣涕請盛".
68) 강준영, 앞의 논문, 2021.
69)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369쪽, "虜言'處可寒', 宋言爾官家也."
70)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127~128쪽.
71) 方壯猷, 앞의 논문, 1930; 藤田豊八, 「蠕蠕の國號及び可汗號につきて」, 『東西交涉史の研究, 卷下, 西域篇及附篇』, 東京: 荻原星文館, 1943, 192~193; 繆鉞, 「北朝之鮮卑語」, 『讀史存稿』, 北京: 三聯書店, 1963, 69쪽; Sukhbaatar, G., 앞의 책, 1971, p. 81; 龍華, 「對鮮卑源流關係的文化考察」, 『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0-2; 周偉洲, 『勅勒與柔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129쪽; 儲泰松 · 張愛雲, 「"處可寒"語源考」,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6: 3, 2018.
72) 『魏書』 卷103, 列傳91, 蠕蠕傳, 北京: 中華書局, 2017, 2393쪽, "號'處'可汗, 魏言'唯'也."
73) Pelliot, P., 앞의 논문, 1921, pp. 326~327; Pelliot, P., "Livres Reçus", *T'oung pao* 29-1, 1932, p. 261.
74) 亦鄰眞, 앞의 논문, 1979-3~4.

기이며 '유(唯)'라는 뜻도 '응낙, 승낙' 등이 아니라 '유일(唯一)'이라는 뜻으로 『송서 · 선비토욕혼전』에서의 '처(處)=이(爾)'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어이다.75) 즉, 『위서』의 기록을 통해 『송서』의 '처'를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 『송서』에 기록된 '처'는 '2인칭 대명사'나 '대답' 모두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린친의 주장과 같이 선비어와 현대 몽골어의 감탄사가 완벽하게 일치할 확률은 적기 때문에 본래 펠리오가 주장한 바와 같이 2인칭 대명사로 몽골어의 'či'나 만주어의 'si'와 연결해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12. 하뢰발(賀賴跋)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γai lat buat[beat]
	中古音 : γɑ lɑi buɑt[bæt]
郭錫良	上古音 : γa lāt buǎt[beǎt]
	中古音 : γɑ lɑi but[bæt]

하뢰발은 모용준(慕容儁)의 소자(小字)이다.76) 기존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하뢰(賀賴)'는 '하란(賀蘭)'의 동음이역(同音異譯)이다.77) 오치랄트(Uchiralt)는 이를 근거로 해서 한발 더 나아가 '[허]연제([虛]攣鞮)', '허련제(虛連題)', '하약(賀若)', '극렬(克烈)', '케레[怯烈]', '케레이트[客舌列亦惕]' 등의 어휘도 역시 '하뢰', '하란'의 다른 음사 형식으로, 몽골어에서 '까마귀(heriye〉kheree)'라는 뜻을 가진 어휘의 음역으로 '하란산(賀蘭山)'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78)

이와 달리 보얀델게르(Buyandelger)와 포문승(包文勝)은 기존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하뢰'와 '하란'의 소릿값에 '-t'가 있음을 근거로 기존 학자들이 'hala(ala)'로 보던 것을 부정하는 한편 중국에서 '박마(駁馬)'라고 번역된 돌궐어 'hala at(ala at; 일찍이 멸종된 야생 얼룩말 박(駁)과 가축으로 기르던 말의 교배로 태어난 종)'의 음역이라고 보았다.79)

당나라 시기 이길보(李吉甫)가 저술한 『원화군현도지』에 따르면 "북쪽 사람들은 박(駮)을 하란(賀蘭)이라 불렀다"고 한다.80) 즉, 이 기록을 통해 하란의 동음이역인 '하뢰' 역시 '얼룩말[駮=駁]'이란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음운학적으로 볼 때 보얀델게르와 포문승이 제시한 돌궐어 'hala at(ala at)'와

75) 袁剛, 『柔然歷史若干問題研究』,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博士學位論文, 2019, 114쪽; 강준영 · 이성규, 「유연 카한 칭호 연구(柔然 可汗 稱號 研究)」, 『동양학』 7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9.

76) 『太平御覽』 卷121, 偏覇部5, 前燕慕容儁條, 北京: 中華書局, 1960, 584쪽, "崔鴻『十六國春秋 · 前燕錄』曰: 慕容儁, 字宣英, 皝第二子, 小字賀賴跋".

77) 姚薇元, 『北朝胡姓考』, 北京: 中華書局, 2007, 36~43쪽; 田餘慶, 『拓跋史探(修訂本)』,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1, 53쪽.

78) 烏其拉圖, 『匈奴語研究』(蒙古文),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13, 326~350쪽.

79) 寶音德力根 · 包文勝, 「"駁馬－賀蘭部"的歷史與賀蘭山名稱起源及相關史地問題」, 『中國歷史地理論叢』, 2017-3.

80) 『元和郡縣圖志』 卷4, 關內道4, 靈州保靜縣條, 北京: 中華書局, 1983, 95쪽, "北人呼駮爲賀蘭".

그 소릿값이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음운학적으로나 역사적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하뢰'를 돌궐어 'hala at(ala at)'의 음역으로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하뢰발의 발(跋)은 탁발(拓跋)의 발(跋)과 한자가 같으며 그 소릿값도 같다. 『위서 · 제기』에 보면 "북쪽 풍속에서 땅(土)을 탁(托), 임금(后)을 발(跋)이라고 한다."고 하였다.[81] 이에 근거하면 하뢰발의 '발'도 역시 '임금'을 뜻하는 어떤 어휘의 음역이라고 볼 수 있다. 벡위드는 '발'에 대해 인도어에서 '주인, 임금(主)'을 뜻하는 'pati'의 차용어가 아닌가 하였고,[82] 라신은 '씨족과 부락의 수령'을 뜻하는 튀르크어 벡(beg)의 음역이 아닌가 하였다.[83] 그 소릿값으로 미루어보면 '발'에 대한 벡위드와 라신의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만,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위서 · 제기』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발'은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뜻을 지닌 어떤 어휘의 음역이 확실하다.

13. 혁락한(弈洛韓) / 혁락간(弈[奕]洛干)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ʎiăk lak ɣan / ʎiăk lak kan
	中古音 : jĭɛk lɑk ɣɑn / jĭɛk lɑk kɑn
郭錫良	上古音 : ʎiăk lăk ɣan / ʎiăk lăk kan
	中古音 : jĭɛk lak ɣɑn / jĭɛk lak kɑn

혁락한은 모용외와 토욕혼의 부친 섭귀(涉歸)의 다른 이름이며 혁락간(弈[奕]洛干)으로도 쓰여있다.[84] 라신은 혁락한에서 '혁락'이 'el(伊利; 토지란 뜻)"의 음역일 가능성이 있고, '한'은 '가한(可汗)'의 축자 번역으로 'el khan'의 음역이라고 보았다.[85]

약락외(若洛廆)와 혁락괴(弈洛瓌) 부분에서 이미 서술하였듯이 혁락은 "누른(nurən)'이라는 노란색을 표현하는 어휘의 음역으로 봐야 하며, 'el'의 음역으로 볼 수 없다. '한'의 경우 북방 군장의 칭호인 '칸(khan)'의 음역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는 '가한'의 축자 번역이 아니라 상술한 바와 같이 북방 군장의 칭호 '카(kha)'와 '칸(khan)'의 합성어로 보아야 한다. '칸'과 '카한'이 다르다는 것은 『몽골비사』에서 'qan(中罕)'과 'qahan(中合罕)'과 같이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86]

81) 『魏書』 卷1 帝紀1, 序紀, 北京: 中華書局, 1974, 1쪽, "北俗謂土爲托, 謂后爲跋".
82) Beckwith, C. I., "The Chinese Names of the Tibetans, Tabghatch, and Turks",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14, 2005, 4~8쪽.
83) 羅新, 앞의 논문, 2006-6.
84)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吐谷渾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369쪽, "阿柴虜吐谷渾, 遼東鮮卑也. 父弈洛韓"; 『梁書』 卷54, 列傳48, 西北諸戎傳, 北京: 中華書局, 1973, 810쪽, "慕容奕洛干有二子, 庶長曰吐谷渾, 嫡曰廆"; 『南史』 卷79, 列傳69, 西戎傳, 北京: 中華書局, 1975, 1977쪽, "慕容弈洛干有二子, 庶長曰吐谷渾, 嫡曰廆洛干".
85) 羅新, 앞의 논문, 2006-6.
86) 栗林均, 『「元朝祕史」モンゴル語漢字音訳 · 傍訳漢語対照語彙』, 仙台: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09 참조.

14. -외(廆) / -귀(歸)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kuəi / kĭwəi
	中古音 : kuɒi / kĭwəi
郭錫良	上古音 : kuəi / kĭwəi
	中古音 : kuɒi / kĭwəi

중국 청말 민국 초의 학자인 심증식(沈曾植)은 일찍이 "선비는 무릇 이름을 지어 붙일 때 외(隗)자를 많이 사용했는데 사문(史文)에서는 들쭉날쭉하게 혹은 괴(魁)로 쓰거나, 혹은 외(廆)로 쓰거나, 혹은 괴(槐)로 쓰거나, 혹은 괴(瑰)로 썼지만, 실은 모두 하나의 글자이다. 다수가 이름의 끝에 있는데 그 습속에서 쓰는 칭호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독괴(禿瑰)의 소리가 또한 자못 독발(禿髮)과 비슷하다."라고 하였다.[87]

풍가승은 '섭귀(涉歸)', '약락외(若洛廆)', '모용외(慕容廆)' 등 이름 중의 '-귀', '-외'의 어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존칭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88] 이와 달리 즉실은 '약락외(若洛廆)'가 '비교적 노란'이란 뜻이 있음을 근거로 '-귀', '-외'는 약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형용사 조어 성분이자 동사 형성 접사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 없다고 보았다.[89]

송기중은 선비 인명 중의 '-외(廆)', '-귀(歸)'는 신라 왕명에서 보이는 '-해(解)'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90] 이성규는 몽골어 중에서 '-qai/-gei' 접사가 존경 혹은 금지의 사고나 색깔, 경향을 나타내는데 선비족 인명에 나타나는 '-외, -귀'와 신라 왕명의 '-해'가 모두 왕족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91] 애음범은 선비의 인명 뒤에 붙는 '외(隗)', '괴(魁)', '외(廆)', '괴(槐)', '괴(瑰)'는 부가성분이 아니라 수령 등의 뜻이 있는 몽골어 'terigün[trguːn]'의 제일 마지막 음절이라고 보았다.[92]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약락외'는 '비교적 노란'이란 뜻이 아니므로 즉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외', '-귀'의 소릿값을 보면 몽골어에서의 명사 형성 접사 '-qai/-gei'와 같고, 신분이 비교적 높은 사람들의 인명에 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성규의 주장과 같이 이는 몽골어에서 '존경이나 금지의 사고, 색깔, 경향'을 나타내는 접사 '-qai/-gei'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87) 沈曾植撰, 錢仲聯輯, 『海日樓札叢』, 北京: 中華書局, 1962, 55~56쪽.
88) 馮家昇, 「契丹名號考釋」, 『燕京學報』, 1933-13.
89) 即實, 앞의 논문, 1983-1.
90) 송기중, 앞의 논문, 1986.
91) 이성규, 앞의 논문, 2018.
92) 艾蔭範, 앞의 논문, 2013-4.

Ⅳ. 모용선비 언어 분석

선비족이 초기에 머무르며 생활하던 지역에 따라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들을 크게 2개의 지파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대흥안령(大興安嶺) 산맥의 남단에 위치한 '선비산(鮮卑山)'에서 발원한 남지선비(南支鮮卑)이고, 다른 하나는 대흥안령 북단의 '대선비산(大鮮卑山)'에서 발원한 북지선비(北支鮮卑)이다.[93] 북지선비를 대표하는 일파가 탁발선비라면 남지선비를 대표하는 일파는 모용선비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한(東漢) 광무제 연간부터 선비족은 한나라와 전쟁이나 조공 등을 통해 교류를 맺으며 한적 사료에서 '선비(鮮卑)'라는 명칭으로 등장한다. 이때부터 단석괴가 동부와 서부 선비를 모두 통합할 때까지 선비(鮮卑)'라는 명칭으로 보이는 이들은 대체로 남지선비를 가리킨다. 즉, 동한 중엽까지 현존하는 문헌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비와 관련된 사적은 남지선비에 대한 것으로 그들의 언어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 등도 역시 남지선비의 것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언어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인명에 '-qai/-gei' 접사가 다소 쓰였음을 통해 방증해 볼 수가 있다. 초기 선비의 인명에 보면 '단석괴(檀石槐)', '성률귀(成律歸)', '돌귀(咄歸, 또는 侯咄歸), '마회(磨懷)', '소발외(蘇拔廆)', '융말외(戎末廆, 또는 戎朱廆)'와 같이 '-괴(槐)', '-귀(歸)', '-회(懷)', '-외(廆)' 등으로 끝나는 인명이 적지 않게 보인다. 이 어말은 몽골어에서 '존경이나 금지의 사고, 색깔 및 경향'을 나타내는 접사 '-qai/-gei'의 음역으로 생각된다.[94] 그리고 위의 Ⅲ.14.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모용선비의 인명에도 마찬가지로 '-외(廆)', '-귀(歸)'가 보이며 이 역시 몽골어 '-qai/-gei' 접사의 음역으로 생각된다. 즉, 초기 선비와 모용선비 모두 인명에 '-qai/-gei' 접사를 사용했음을 통해 양자가 관련성이 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확실하진 않지만 '-tu/-tü~-tan/-ten/-tun' 접사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기 선비와 오환의 인명에 보면 '괴두(槐頭)', '괴두(魁頭)', '만두(滿頭)', '포두(蒲頭, 또는 附頭)'와 같이 어말이 '-두(頭)'로 끝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는 '-tu/-tü' 접사의 음역일 수도 있고, '답돈(蹋頓)', '구루돈(寇婁敦)'과 같이 '-돈(頓)', '-돈(敦)'은 '-tan/-ten/-tun' 접사의 음역일 수도 있다.[95] 모용선비의 인명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모용발(慕容拔)의 소자(小字)가 '독두(禿頭)'로 역시 그 어말이 'tu/-tü' 접사의 한역일 수도 있다. Ⅲ.8.에서 서술한 '아육돈(阿六敦)'이 'altan(=金)'의 음역인데 이 어휘는 본래 'al(붉은색)'이란 단어에 '-t(an)'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형성된 것이다.[96] 여타 '-tu/-tü~-tan/-ten/-tun' 접사가 인명에 사용된 것에 반해 이는 '금(金)'이라는 물체를 표현하는데 사용된 접사다보니 동일한 접사 형태로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같은 접사 형태가 사람이나 물체 모두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상기 2개의 접사는 훗날 유연(柔然)과 중세 몽골어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접사들이기도 하다. '-qai/-gei'

93) 張久和,「東胡系各族縱觀」,『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0-2; 何天明,「試論鮮卑族的遷徙及其社會進步」,『黑龍江民族叢刊』, 1994-3 참조.
94) 강준영, 앞의 논문, 2021.
95) 강준영, 앞의 논문, 2021.
96) 이성규,「광물 이름의 비교를 통한 알타이어족의 분화시기 연구」,『몽골학』27, 한국몽골학회, 2009.

접사의 경우 유연에서는 '-개(蓋)', '-괴(瓌)'로 중세 몽골어에서는 '-해(孩)', '-해(該)'로 쓰였으며, 'tu/-tü~-tan/-ten/-tun'의 경우 유연에서는 '-돈(敦)'으로 중세 몽골어에서는 '-단(壇)'과 '-전(田)'의 형태로 등장한다.[97] 동일한 접사가 쓰였다는 점에서 초기 선비와 모용선비, 유연, 중세 몽골까지 같은 계통의 언어나 유사한 형태의 언어, 혹은 서로의 언어 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엽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고증되는 P.T.1283 문서에 따르면 토욕혼의 언어는 거란의 언어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되어있다. 주지하다시피 언어는 생활환경을 비롯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요인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를 상기하면 3세기 말을 전후해 서진(西進)해 오늘날 청해성 일대에 정권을 세우고 그 주변의 여타 민족들과 교류하며 그들 언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 당연한데도 수백 년이 지나서도 거란의 언어와 '거의 비슷했다'는 것은 그들 언어의 근간이 같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듯이 거란어는 몽골어족에 속하는 언어였다는 것에 이견이 적다. 따라서, 토욕혼과 모용선비의 언어도 몽골어족에 속했을 소지가 다분하며 이들의 선조인 남지선비(=초기 선비)의 언어도 역시 몽골어족에 속하는 언어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도 결국 한 문서의 기록을 토대로 한 추정일 뿐으로 이를 방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의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는 모용선비가 일찍부터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 탁발선비 등에 비해 그들 본래의 언어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그나마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선비어 이름인 '소자(小字)'의 경우, 문헌 사료에서 음역(音譯)이 아닌 뜻을 번역한 형태로 기록했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모용황(慕容皝)의 소자인 '만년(萬年)', 모용희(慕容熙)의 소자인 '장생(長生)', 모용충(慕容冲)의 소자인 '봉황(鳳皇)', 모용인(慕容仁)의 소자인 '천년(千年)' 등이다.[98]

중원 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오늘날 모용선비의 언어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적기는 않지만,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모용선비 언어에서는 역시 초기 선비의 언어나 훗날의 유연, 중세 몽골어에서와 마찬가지로 '-qai/-gei' 접사가 인명에 사용되었고, '-tu/-tü~-tan/-ten/-tun' 접사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휘는 그들이 처한 무수한 환경에 의해 차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어휘만 가지고는 그 언어 계통을 살피기 어렵다. 이와 달리 접사는 그 언어의 근간 중 하나로 자주 차용되어 사용되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의 원형을 밝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비록 2개의 접사가 쓰였던 정황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들 접사가 몽골어와 연관성이 있음을 통해 모용선비의 언어가 몽골어족과 많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97) 강준영 · 이성규, 앞의 논문, 2019.

98) 『魏書』 卷95, 列傳83, 徒何慕容廆傳附慕容寶傳, 北京: 中華書局, 1974, 2060; 2062; 2070쪽, "元眞, **小字萬年**"; "沖小字鳳皇"; "熙, 字道文, **小字長生**"; 『資治通鑑』 卷95, 晉紀17, 咸和九年條, 北京: 中華書局, 1976, 3180~3181쪽, "千年者, 慕容仁小字也".

Ⅴ. 맺음말

본 글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분석되었던 어휘와 기존에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어휘의 분석을 통해 모용선비의 언어에 관해 나름의 견해를 피력해 보았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모용선비 언어 분석표[99]

연번	어휘	재구형	분석 내용
1	可寒	khahan	카 + 칸의 합성어, 황제(皇帝)
2	庫勾	kök, kökö	[신성한] 푸른, 푸른색
3	慕輿根	buyan	선, 덕행, 복 + 군장 칭호(큰)
4	阿干	aqa(n)	兄, 長者
5	阿六敦	altan	金
6	若洛/弈[奕]洛	nurən	'누르고', '누렇다', '노랗다', '노란' 등
?7	那樓	nara/nal/monal	태양, 날, 하늘, 간수, 보호, 경비
?8	處	či/si	2인칭 대명사
?9	賀賴跋	hala at(ala at) + pati/beg	박마(駁馬) : 일찍이 멸종된 야생 얼룩말 박(駁)과 가축으로 기르던 말의 교배로 태어난 종 발 :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뜻
10	韓/干	khan	북방 군장 칭호
11	-廆/-歸	-qai/-gei	존경이나 금지의 사고, 색깔, 경향을 나타내는 접사
12	-敦	-tu/-tü~-tan/-ten/-tun	부가성을 나타내는 접사

모용선비 언어에는 초기 선비나 훗날의 유연, 중세 몽골에서 사용했던 '-qai/-gei' 접사가 보이며, '-tu/-tü~-tan/-ten/-tun' 접사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접사는 한 민족의 언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어휘와 달리 쉽게 변하거나 차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모용선비의 언어는 몽골어족에 속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2개만의 접사만을 가지고서는 모용선비의 언어적 실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접사가 확인되면 모용선비의 언어적 실체가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가능한 많은 양의 어휘를 분석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독두(禿頭)', '악노(惡奴)', '선구(善駒)'와 같은 선비 이름인 '소자(小字)', '굴돌(屈突)', '피려(辟閭)', '실라(悉羅)', '곡곡(斛谷)', '무은(務銀)', '구니(仇尼)', '오제[염](吳提[染])', '걸특(乞特)', '륵마(勒馬)' 등과 같은 선비족 성씨(姓

99) 연번 앞의 '?' 표시는 그 재구형이나 분석 내용이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다.

氏)와 인명을 비롯해 선행 연구에서 분석한 어휘로 위에서 재검토한 일부는 해석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모용선비의 언어에 관한 외연을 확대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앞으로 누구라도 금번에 분석하지 못했던 어휘를 분석해서 모용선비의 언어적 실체가 더 밝혀지길 고대한다.

〈참고문헌〉

[晉]陳壽(著)・[南朝宋]裴松之(注),『三國志』, 北京: 中華書局, 1959.
[北齊]魏收,『魏書』, 北京: 中華書局, 1974.
[北齊]魏收,『魏書』(點校本 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7.
[梁]沈約,『宋書』, 北京: 中華書局, 1974.
[唐]姚思廉,『梁書』, 北京: 中華書局, 1973.
[唐]李百藥,『北齊書』, 北京: 中華書局, 1974.
[唐]房玄齡等,『晉書』, 北京: 中華書局, 1974.
[唐]李延壽,『北史』, 北京: 中華書局, 1974.
[唐]李延壽,『南史』, 北京: 中華書局, 1975.
[唐]李吉甫,『元和郡縣圖志』, 北京: 中華書局, 1974.
[宋]李昉等,『太平御覽』, 北京: 中華書局, 1960.
[宋]歐陽修等,『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宋]歐陽修(著)・胡三省(注),『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82.
[宋]鄭樵,『通志』, 北京: 中華書局, 1987.
유원수 역주,『몽골비사』, 파주: 사계절.
[清末民初]沈曾植撰, 錢仲聯輯,『海日樓札叢』, 北京: 中華書局, 1962.
Talat Tekin(저), 이용성(역),『돌궐비문연구: 퀼 티긴 비문, 빌개 카간 비문, 투뉴쿠크 비문』, 서울: 제이앤씨, 2008.
강준영・이성규,「유연 카한 칭호 연구(柔然 可汗 稱號 硏究)」,『동양학』 7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9.
康准永,『慕容鮮卑歷史若干問題硏究』, 中國: 內蒙古大學校博士學位論文, 2020.
강준영,「초기 선비(鮮卑) 어휘 연구」,『몽골학』 65, 한국몽골학회, 2021.
김상윤,「三國의 固有語 官職名語彙 小考」,『어문연구』 72, 어문연구학회, 2012.
金成淑,『慕容鮮卑文化硏究』, 北京: 北京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1999.
박원길,「Sine-usu碑文과 P.1283文書에서 본 바이칼 주변 및 동몽골의 민족분포－Čik과 鞠部, Mug-lig(貊族)와 白霫을 중심으로－」,『몽골학』 54, 한국몽골학회, 2018.

송기중,「新羅 前半期의 官職名・人名과 北方民族語」,『진단학보』61, 진단학회, 1986.
이성규,「광물 이름의 비교를 통한 알타이어족의 분화시기 연구」,『몽골학』27, 한국몽골학회, 2009.
이성규,「선비어 관직명 연구(鮮卑語 官職名 硏究)」,『몽골학회』53, 한국몽골학회, 2018.
郭錫良,『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羅新,「論拓跋鮮卑之得名」,『歷史硏究』, 2006-6.
羅新,『中古北族名號硏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繆鉞,『讀史存稿』, 北京: 三聯書店, 1963.
米文平,『鮮卑史硏究』,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4.
方壯猷,「鮮卑語言考」,『燕京學報』, 1930-8.
白鳥庫吉著, 方壯猷譯,『東胡民族考』, 上海: 商務印書館, 1934.
寶音德力根・包文勝,「"駁馬-賀蘭部"的歷史與賀蘭山名稱起源及相關史地問題」,『中國歷史地理論叢』, 2017-3.
薛虹・李澍田主編,『中國東北通史』,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1.
聶鴻音,「鮮卑語言解讀述論」,『民族硏究』, 2001-1.
蘇日巴達拉哈,「蒙古族源之新探(續)」,『內蒙古社會科學』, 1982-1.
艾蔭範,「尾音節爲"隗"的古鮮卑人名音讀和意涵初判」,『北方文物』, 2013-4.
亦鄰眞,「中國北方民族與蒙古族族源」,『內蒙古大學學報』, 1979-3~4.
烏其拉圖,『匈奴語硏究』(蒙古文),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13.
王堯・陳踐,「敦煌古藏文本≪北方若干國君之王統敍記≫文書」,『敦煌學輯刊』, 1981-2.
姚薇元,『北朝胡姓考』, 北京: 中華書局, 2007.
饒宗頤,『饒宗頤東方學論集』, 汕頭: 汕頭大學出版社, 1999.
龍華,「對鮮卑源流關係的文化考察」,『貴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0-2.
袁剛,『柔然歷史若干問題硏究』,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博士學位論文, 2019.
李珍華・周長揖,『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張久和,「關于室韋語言的幾個問題－室韋史硏究之二」,『內蒙古社會科學』(文史哲版), 1992-2.
張文杰,「北魏文成帝「南巡碑」中的鮮卑職官」,『止善』17, 2014.
章紅梅,「"可足渾氏"考辨」,『北方文物』, 2018-1.
儲泰松・張愛雲,「"處可寒"語源考」,『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6: 3, 2018.
田餘慶,『拓跋史探(修訂本)』,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11.
鄭小容,「慕容鮮卑漢化過程中所保留的本族文化」,『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5-2.
周偉洲,『勅勒與柔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朱學淵,「鮮卑民族及其語言(上)」,『滿語硏究』, 2000-1.
即實,「契丹國號解」,『社會科學輯刊』, 1983-1.
馮家昇,「契丹名號考釋」,『燕京學報』, 1933-13.

馮家昇,「東胡民族考」,『地學雜志』, 1934-2.
馮家昇,「東胡民族考(一續)」,『地學雜志』, 1935-1.
馮家昇,「東胡民族考(二續)」,『地學雜志』, 1935-2.
藤田豐八,「蠕蠕の國號及び可汗號につきて」,『東西交涉史の研究, 卷下, 西域篇及附篇』, 東京: 荻原星文館, 1943.
栗林均,『「元朝祕史」モンゴル語漢字音訳・傍訳漢語対照語彙』, 仙台: 東北大学東北アジア研究センター, 2009.
白鳥庫吉,『白鳥庫吉全集, 第四卷, 塞外民族史研究 上』, 東京: 岩波書店, 1970.
森安孝夫,「チベット語史料中に現われる北方民族－DRU-GUとHOR－」,『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14, 1977.
Bazin, L., "Recherches sur les Parlers T'o-pa", *T'oung Pao* 39: 4/5, 1950.
Beckwith, C. I., "The Chinese Names of the Tibetans, Tabghatch, and Turks", *Archivum Eurasiae Medii Aevi* 14, 2005.
Boodberg, P. A., "The Language of the T'o-Pa Wei",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 2, 1936.
Pelliot, P., "Livres Reçus", *T'oung pao* 29-1, 1932.
Pelliot, P., "Note sur les T'ou-yu-houen et les Sou-p'i", *T'oung pao* 20: 5, 1921.
Pritsak, O., "From the Säbirs to the Hungarians". In Edited by Gyula Káldy-Nagy. *Hungaro-Turcica: Studies in Honour of Julius Németh*. Budapest: Loránd Eötvös University, 1976.
Sukhbaatar, G., *Syanbi Narin Ugsaa Garal, Soyol, Aj Akhui, Niigmiin Baiguulal(Nen ertnees m.e.Ⅳ zuun)*, Ulaanbaatar: Shinjlekh Ukhaani Akademiin khevlel, 1971.
P.T.1283 문서 공개 사이트 :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8305761g/f2.item

* 이 논문은 2021년 8월 26일에 투고되어,
2021년 9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0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1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f Murong Xianbei Language

Kang, Junyoung*

Murong Xianbei, a clan of the Xianbei tribe, has been active on the historical stage for a long time. During the Sixteen kingdoms, they established dynasties such as Former Yan, Later Yan, Western Yan, Southern Yan, and Tuyuhun. For this reason, Murong Xianbei received the attention of many scholars early on, and research was conducted in many-sided. However,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ir language.

In this article, I tried to analyze Murong Xianbei's language through related records that remained in the historical documents until the 2nd and 5th centuries when it was very active in the historical stage. First of all, let's reconstruct the Chinese characters of that time, and previous studies were critically reviewed. Then, I tried to analyze some of the vocabulary of Murong Xianbei that had not been analyzed befo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confirmed that there were some misinterpretations in previous studies. and I was able to confirm what kind of transliteration of these words, such as 庫勾(kök, kökö), 阿六敦(=altan) and 若洛/弈𨽻洛(nurən). In addition, i also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ffixes seen in early Xianbei, Rouran, and medieval Mongolian languages, such as '-qai/-gei' and '-tu/-tü~-tan/-ten/-tun'. These affixes are thought to b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can prove that the language of Murong Xianbei is related to the Mongolian language family.

[Keywords] Murong Xianbei, Early Xianbei, Murong Xianbei language, Affix, Mongolic languages

* Full-time researcher, Institute for Mongolian Studies of Dankook University